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 요인

최재은^{1,2} · 배정미^{1*}

¹인제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²울산큰빛응촌병원

Influencing Factor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sychiatric Nurse

Jae Eun Choi¹ · Jeong Yee Bae^{1*}

Dept. of Nursing, Inje University, Bokji-ro 75, 47392, Busan, South Korea

(Received August 19, 2022 / Revised September 5, 2022 / Accepted September 6, 2022)

Abstract Background: Research is necessary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of psychiatric unit nurses and the quality of nurse services. Purpose: This study was to obtain primary data for enhanc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sychiatric nurses by investigat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m.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e study period was from February 18 to March 31, 2019, with the subjects being 150 psychiatric nurses working in the ward of a psychiatric hospital in Gyeongnam. We used questionnaires on job stress measurement,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response index, resilience sca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 subjects' levels of the job stress, empathy,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anged from 2.34 to 3.33 points. The level of recovery resilience and well-being according to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is 40 years or older, married, religious, ten years of nurse experience, above average economic level, psychiatric qualifications, senior nurse or higher, resilience education. All participants were significantly ($p < .001$). **Conclusions:** In this study, psychological well-being increased as the job stress was low and empathy and resilience were high. Therefore, it should make a proper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strength and well-being of psychiatric nurses.

Key words Psychiatric unit nurse, Psychological well-being, Job stress, Empathy, Resilience

초록 정신과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행하였다. 경남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측정, 대인관계 반응지수, 회복력 척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2.34점~3.33점 범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 탄력성과 안녕감 수준은 40대 이상, 기혼, 종교가 있을 때,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 보통 이상의 경제 수준, 정신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책임간호사 이상, 탄력성 등의 교육에 참여자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수준과 회복탄력성에 있었다($\beta = .76, p < .001$). 이들 요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67%였다. 경제 수준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었다. 따라서 정신과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안녕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주제어 정신과 간호사,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서 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병원은 점차 전문화되고 조직구조 또한 복잡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Heo, 2005; Sveinsdottir *et al.*, 2006). 이중 병원 의료인력의 약 40%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병원 조직에서 행정적으로는 다양한 직종 간 팀워크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Park, 2003; Han *et al.*, 2007).

인간의 삶에 있어 행복감은 중요한 요소인데, 행복감은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서, 포괄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Diener, 1984; Ko, 2013).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자아수용,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의 합이다(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간호사는 동료 및 환자들과 긍정적으로 호작용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하며, 주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Park & Hong, 2019).

Seo(2011)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을 부분 매개하는 것과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간호사의 대처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Loukazdeh & Bfroofi, 2013), 간호사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Happellet *et al.*, 2014).

특히 정신과 간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정신과적 응급사태와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으로 여겨져 왔다(Yoon & Lee, 2003). 이러한 힘든 간호 업무로 인해 받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정서표현을 약화하고, 직무스트레스의 심화로 인하여 정신과 간호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고 있다(Yoon & Lee, 2003). Moon(2013)은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신과 간호사는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하고 환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 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활용한다(Alsarireh *et al.*, 201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찰한 결과, 일반 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와 관련된 태도,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등으로 보고되었지만 정신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

녕감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 논문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일반간호사와 정신과 간호사의 안녕감 영향요인은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생명윤리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INJE 2018-11-019-00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의 12개 정신과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정신과 간호사 150명을 임의표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 산정 기준은 G*power 3.1.6 program으로 산출하였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요인 수가 9개(결혼상태, 간호사 총 경력, 경제 수준, 현 직위, 정신과 선택 동기, 교육 및 특강 참여 여부,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일 경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 크기 .1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9부를 제외한 141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직무 스트레스

Bae(1989)가 개발한 정신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Joo(2016)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행정, 과중한 업무, 전문직 간호사 역할갈등,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동료와의 갈등, 타 의료원과의 갈등, 환자와의 갈등, 상위직과 갈등, 간호조무사와 갈등, 부적절한 보상, 근무형태, 부적절한 근무환경, 인력부족의 1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낀다(4점)'의 4점 Likert 척도(35~14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Bae(198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Joo(20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공감능력

Davis(1980)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1997)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인지적 공감 14문항과 정서적 공감 14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28~14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avis(1980)가 보고한 IRI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회복탄력성

Conor & Davidson(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한글로 번안한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강인성, 지속성, 내구력, 낙관주의, 지지, 영성분야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0~10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et al.*,(2001)이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 수용, 환경에 대한 통찰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46~23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0]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인제대학교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생명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12개의 정신과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의 간호부에 연구 허가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다. 정신과 병동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부서장에게 설문조사의 목적, 작성요령 및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고, 설문이 끝난 다음 개별봉투에 담아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이

후 연구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IBM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2.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정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사후비교를 위하여 Scheffé test를 하였다.
4.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5.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80.1%(11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 별로는 20~29대가 38.3%(54명), 40대 이상이 36.2%(51명), 30~39대가 25.5%(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가 52.5%(74명), 종교는 없는 경우 61.7%(87명), 경제 수준에서는 보통이 79.5%(11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구성원이 다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41명의 직무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간호사 총 경력은 평균 10.51년이었으며, 10년 이상이 44.0%(62명)로 높았고, 정신과 근무경력은 평균 7.44년으로 6개월에서 5년 미만이 50.4%(71명)로 가장 높았다.

정신과 간호사 관련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32.6%(46명), 일반 간호사가 70.9%(100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의적으로 정신과를 선택했을 때가 85.1%(120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6%(77명)이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간호사는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정신과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32.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working years and careers of nurses

Characteristics	Years worked & careers	N	Ratio(%)	Mean ± SD
Total work experience(yrs)	0.5 < 5	55	39.0	10.51 ± 9.37
	5 ≤ and < 10	24	17.0	
	≥ 120	62	44.0	
Psychiatric work experience(yrs)	0.5 < 5	71	50.4	7.44 ± 7.19
	5 ≤ and < 10	25	17.7	
	≥ 120	45	31.9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certifications	Yes	46	32.6	
	No	95	67.4	
Position	Staff nurse	100	70.9	
	Above charge nurse	41	29.1	
Reason for selecting Psychiatry	Self-will	120	85.1	
	Another person recommend	21	14.9	
Mental care training	Yes	77	54.6	
	No	64	45.4	

N: Total subjects was 141.

Table 2. Differences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s	Categories	Mean ± SD	t/F	p* (Scheffé)
Age (yrs)	20-29 ^a	56.24 ± 12.54	3.94	.022 (a,b < c)
	30-39 ^b	56.44 ± 15.12		
	≥ 40 ^c	62.22 ± 8.36		
Marital status	Un-married	55.49 ± 12.84	-3.91	.001
	Married	62.95 ± 9.77		
Religion	Yes	61.46 ± 11.84	2.34	.021
	No	56.59 ± 12.18		
Total work experience (yrs)	0.5 < 5 ^a	55.71 ± 12.10	8.23	.001 (a,b < c)
	5 < 10 ^b	53.38 ± 12.92		
	≥ 10 ^c	62.85 ± 10.70		
Psychiatric work experience (yrs)	0.5 < 5	56.13 ± 12.25	2.80	.064
	5 < 10	59.76 ± 14.49		
	≥ 120	61.40 ± 10.23		
Economic level	Low level	51.43 ± 14.64	-3.53	.001
	Above average	60.19 ± 10.96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certifications	Yes	62.48 ± 10.82	2.78	.006
	No	56.51 ± 12.46		
Position	Staff nurse	56.47 ± 11.97	-3.10	.002
	Charged nurse	63.29 ± 11.64		
Reason for selecting Psychiatry	Self-will	57.49 ± 12.55	-2.94	.006
	Recommended	63.95 ± 8.60		
Mental care training	Yes	61.74 ± 11.36	3.65	.001
	No	54.50 ± 12.17		

연령에서는 40대 이상($p = .022$)에서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p < .001$), 종교가 있는 경우($p = .021$), 간호사 총 경력이 10년 이상($F = 8.23, p < .001$), 보통 이상의 경제수준($p < .001$), 정신과 관련 자격이 있을 때($p =$

$.006$), 책임간호사 이상($p = .002$), 정신과 선택 동기가 타의적 일 경우($p = .006$), 정신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p < .001$)에서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았다.

사후 비교를 위하여 Scheffé 검정을 실시에서는 연령은 40대

이상이 20~29대, 30~39대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총 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이 6개월에서 5년 미만과 5년에서 10년 미만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육과 성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연령, 결혼유무, 종교, 간호사 총 경력, 경제 수준, 정신과 관련 자격, 현 직위, 정신과 선택 동기, 정신간호 관련 교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23$). 간호사 총 경력이 10년 이상($p = .019$), 보통이상의 경제수준($p < .001$), 책임간호사 이상($p < .005$), 정신과 선택동기가 타의적일 경우($p < .011$), 정신간호 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p < .004$)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사후비교를 위하여 Scheffé 검정에서 간호사 총 경력은 10년 이상이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보다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경력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결혼상태, 간호사 총 경력, 경제 수준, 현 직위, 정신과 선택 동기, 정신간호 관련 교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 변수인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r = -.20, p < .01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감능력($r = .16, p < .047$)과 회복탄력성($r = .81, p <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와 공감능력($r = .13, p > .13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회복탄력성($r = -.17, p < .048$)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r = .23, p < .00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결혼상태, 간호사 총 경력, 경제 수준, 현 직위, 정신과 선택 동기, 교육 및 특강 참여 여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의 값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반응변수의 변화량을 확인하고자 할 때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여 그 해석에 문제를 야기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 : TOL)는 .29~.92로 기준점 .10 이하인 값은 나타나지 않았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는 1.09에서 3.40점으로 기준점 10점 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투입된 9개의 독립변수 중 경제 수준($p < .007$)과

Table 3.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 SD	t/F	p*
Marital status	Un-married	150.15 ± 19.04	-2.30	.023
	Married	157.20 ± 15.74		
Total work experience (yrs)	0.5 < 5 ^a	151.25 ± 18.76	4.10	.019
	5 < 10 ^b	145.71 ± 18.08		
	≥ 10 ^c	157.26 ± 16.53		
Economic level	Low level	139.71 ± 19.45	-4.63	< .001
	Above average	156.23 ± 16.21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certifications	Yes	156.83 ± 18.69	1.79	.076
	No	151.07 ± 17.57		
Position	Staff nurse	150.22 ± 17.67	-2.87	.005
	Above charge nurse	159.61 ± 17.53		
Reason for selecting Psychiatry	Self-will	151.35 ± 17.94	-2.56	.011
	Another person recommend	162.10 ± 16.42		
Mental care training	Yes	156.88 ± 17.74	2.91	.004
	No	148.22 ± 17.47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8	.22	-	8.51	<.001
Marital status (Married)	-0.04	.06	-.05	-0.66	.510
Total work experience(0.5 < 5)	0.05	.07	.06	0.70	.484
Total work experience*(5 < 10)	-0.01	.07	-.01	-0.10	.922
Economic level*(Above average)	0.14	.05	.14	2.70	.008
Position (Above charge nurse)	0.08	.05	.09	1.48	.140
Reason for selecting Psychiatry(Another person recommend)	0.04	.06	.04	0.74	.459
Experience in attendance at education(Non)	0.01	.04	.01	0.18	.857
Job Stress	-0.05	.04	-.07	-1.27	.208
Empathy	0.00	.06	.00	0.08	.938
Resilience	0.61	.05	.76	12.72	<.001

* Dummy Variable : Marital status, Total work experience, Economic level, Position, Reason for selecting Psychiatry, Experience in attendance at education

** Durbin-Watson=2.051/Tolerance: .29~.92 VI : 1.09~3.40

***adi $R^2 = .67 / F = 29.46 (p < .001)$

회복탄력성($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이 중 표준화계수(β)의 절대값 크기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들 요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67%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사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간호사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감, 직무 스트레스, 공감 능력, 및 회복 탄력성 정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Hwang(2016)은 심리적 안녕감의 문항 평균은 3.41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높았으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2014)의 연구에서는 3.29점에서는 낮게 나왔다. 이는 연구 집단 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적 특성(Table 3)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결혼 상태, 간호사 총 경력, 경제 수준, 현 직위, 정신과 선택 동기, 그리고 교육 및 특강 참여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대상으로 한 Hwang(2016)의 연구에서도 나이, 결혼상태, 최종학력, 자격 여부, 직위, 총 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형태, 수면시간, 수면 만족 여부, 현 근무지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 총 경력과 직위의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의 결과와 같이 경력과 현 직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정도도 높

게 나타났다(Table 2). 특히 간호사 총 경력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직무 스트레스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5년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고,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반대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Hwang(201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 정신과 총 근무경력, 정신과 관련 자격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본 연구결과에 대해 정신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011)과 Cho(2011), 그리고 Seol(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의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Cho(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 임상경력, 자격 사항, 그리고 직위에서, Jung(2017)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선행연구의 공통요인인 성별과 경력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공감 능력이 높았다.

회복 탄력성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 학력, 그리고 정신과 총 근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본 연구와 연구 대상이 같은 Seol(201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공통으로 현 직위 및 경력에 따라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간호사가 회복 탄력성이 가장 높지만, 책임간호사에 해당하는 5년에서 10년 미만 경력자의 회복 탄력성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요인 중 정신과 선택 동기의 경우, 타의적으로 정신과를 선택한 경우가 자의적으로 정신과를 선택한 경우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예측되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긍정심리자본 중 하나인 회복 탄력성을 도입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접근하였다는 점과 경제 수준에 따른 정신과 간호사의 회복 탄력성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신과 선택 동기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분석단위로 사용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정신과 선택 동기는 사회 통념상 예측되는 결과와 상반되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내적 동기에 따른 심리·정서적 상태가 회복 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 변수의 역할에 관한 추후연구가 다양한 의료영역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간호사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간호사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12개 정신과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9개를 제외한 총 14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총 4개로, 정신과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도구, 공감능력 도구, 한국판 회복탄력성 도구,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도구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37점, 공감능력 정도는 평균 3.31점,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 3.34,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여성($p = .004$), 정신과 총 근무경력에서는 5년에서 10년 미만, 정신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40대 이상, 기혼, 종교가 있을 때, 간호사 총 경력 10년 이상, 경제 수준에서 보통이상, 정신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책임간호사 이상, 정신과 선택 동기에서 타의적일 때,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교육 및 특강 참여를 하였을 때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기혼, 간호사 총 경력 10년 이상, 경제 수준이 보통 이상, 책임간호사 이상, 정신과 선택동기가 타의적인 경우, 그리고 직무에 대한 교육 및 특강 참여를 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

5.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r = -.20, p =$

.015)와 음의 상관관계를, 공감능력($r = .16, p = .047$)과 회복탄력성($r = .81, p < .001$)과는 양의 상관관계로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높아짐을 의미한다.

6.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수준($\beta = .14, p = .007$)과 회복탄력성($\beta = .76, p < .001$)이었다. 이 중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통이상의 경제 수준이거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요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67%였다.

제 언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방적이고 실제적이며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lsaraireh, F., M.T. Quinn Griffin, S.R. Ziehm, and J.J. Fitzpatrick. 2014.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Jornadian nurses in psychiatric units. *Intern. J. Mental Health Nurs.* 23(5): 460-467. doi:10.1111/inm.12070
- Bae, J.Y. 1989.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tress measurement tool for psychiatric nursings. *J. Kor. Nurs.* 28(1): 77-88.
- Cameron, F. and S. Brown. 2010. Enhancing resilience in registered aged care nurse. *Australasian. J. Aging* 29(1): 66-71.
- Cho, M.J. 2014. National psychiatric coping with job stress and nurses turnover intention. Jeo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pp.1-61.
- Cho, H.K. and S.A. Kim. 2017.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ethical climate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J. Kor. Acad. Psychi. Mental Health Nurs.* 26(2): 204-215.
- Conor, KM, Davidson J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Davis, M.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10: 85-10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 Bull.* 95: 542-575.
- Han, A.K., O.S. Kim, and J.S. Won. 2007. A study on job stress and coping method by the personality types of clinical nurses. *Clin. Nurs. Res.* 12(2): 125-136.
- Happell, B., C.J. Gaskin, K. Reid-Searl, and T. Dwyer. 2014. Physical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nurse in a regional

- Queensland hospital. *Collegian* 21(1): 71-18. doi: 10.1016/j.colegn.2013.02.005.
- Heo, K.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organization. *J. Kor. Acad. Human Resource Manag.* 12(1): 21-45.
- Hwang, Y.M. 2016.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anger expression on psychiatric nurses' psychological well-being, NamBu University Master's thesis, Gwang-ju.
- Jeong, Y.H. 2017.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clinical competency. *Kor. Nat. Univ. of Transportation Master's thesis*, Chungju, pp.27-28.
- Joo, H.Y. 2016. The factors affecting on turnover inten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Busan, pp.1-54.
- Jung, H.S. 2017. Impact of empathy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nursing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Chonbuk, pp.24-31.
- Park, J.A. and J.Y. Hong. 2019.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20(4): 448-457.
- Kim, H.J. 2010. The effect of nurse's job-stress on well-being :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optimism. Gyeong S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Jinju.
- Kim, H.J. 2010. A Study on the work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nurses.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Inje.
- Kim, M.S., H.W. Kim, and K.H. Cha. 2001. A study on the concept of composi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Korean adult men and women. *J. Kor. Psychol. Soc.* 15(2): 98-108.
- Kim, J.H. and S.A. Park 200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stress response of the staff nurses. *J. Kor. Acad. Nurs. Admin.* 9(2): 217-232.
- Kim, M.J. and M.O. Gu. 1984. The development of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 working in the hospital. *J. Kor. Acad. Nurs.* 14(2): 28-37.
- Ko, J.O. 2013.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 work place. *J. Kor. Contents Ass.* 13(4): 250-261.
- Lee, M.J. 2016. Occupational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clinical nurses. Busan Nat. Univ., Master's thesis, Busan, pp.1-65.
- Loukazdehz, Z. and N.M. Bfrooi. 2013. Association of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hospital nurse. *J. Caring Sci.* 30(4):313-319. doi: 10.5681/jcs.2013.037
- Moon, I.S. 2013. Effects of acceptance- commitment theory (ACT) programs on the clinical nurse's work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 East-West Mind Sci. Kor.* 16(1): 85-102.
- Oh, J.A. 2013. The effects of nurses's anger-expression mode and emotional labor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rvice level. Kwang 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Chuncheon.
- Park, J.U.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psychiatric nursings. Ewha Woman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pp. 23-24.
- Park, S.H. 1997.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Munum Pub., Seoul.
-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on. Social Psychol.* 57(6): 1069-1081.
- Seol, B.Y. 2018. Influencing factors of job stress o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Inje University, Inje.
- Seo, M.J. and S.M. Hong. 2015. The effect of collective art therapy on the task stress and emotion expression of the nurse in the psychiatric ward. *J. Kor. Acad. Arts Treatment.* 15(1): 93-115.
- Seong M.S. 2014.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 Resilience of health professionals as a mediator.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pp.38-42.
- Sveinsdottir, H., P. Biering, and A. Ramel. 2006. Occupational stress, job satisfaction and working environment among icelandic nurse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 J. Nurs. Stud.* 43(7): 875-889. doi: 10.1016/j.ijnurstu.2005
- Yoon, C.G. and H.N. Lee. 2003. A study on the job stress of nurses in hospital. *J. Kor. Soc. Health Informat. Statistics* 28(2): 95-109.